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 학위논문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2024년 02월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성 지 민

심리학석사 학위논문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지도교수 천 성 문

이 論文을 心理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4년 02월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성 지 민

이 논문을 성지민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2월 16일



주 심 교육학박사 박 태 정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양 도 연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천 성 문 (인)

목 차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v
국문초록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1
1. 이주노동자	11
2. 심리적 적응	14
3. 질적 메타분석	17
III. 방 법	18
1. 연구방법	18
2. 연구대상 및 절차	20
3. 자료분석	22

IV. 결 과	26
1. 분석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	26
2.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29
V. 논 의	54
참고문헌	63
Abstract	7
부 록	76
1.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8) 문항지	76
2. 분석 대상 연구물	78

표 목차

표 1. 본 연구 질적 메타분석 연구절차	19
표 2.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25
표 3.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26
표 4. 주제 분석 결과표	30
표 5. 분석 대상 연구들 간 해석	32



그림 목차

그림 1. 분석 대상 선정과정	21
------------------------	----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성지민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질적 메타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KCI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 4편, 학술지 등재후보 1편, 박사학위논문 3편, 석사학위논문 2편까지 총 10편을 포함하였다.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부정적 심리 적응’, ‘긍정적 심리 적응’으로 명명한 두 가지 분류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도출하였다. 이어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함’, ‘차별을 받음’, ‘정체성 혼란’, ‘외부와 단절된 삶’, ‘한국 문화에 익숙해 짐’,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사회적지지 체계가 만들어짐’, ‘고국의 가족과 나은 미래를 희망함’에 대한 아홉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결과로는 신체장애와 인권침해 경험, 체류신분이 불안할수록 부정적 심리 적응 경험을 하였다. 반면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사회적지지 체계가 견고할수록 긍정적 심리 적응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확인한 요인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각각의 핵심 개념에 따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 후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및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이주노동자, 심리적 적응, 질적 메타분석

I. 서 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문제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45회 UN에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용어를 “출신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IOM, 1990). 2020년에는 전 세계 이주민의 수가 약 2억 8천 1백만 명에 달해,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1억 6천 9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한겨레, 2022, 9, 18).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은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나타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와 청년들의 취업 회피 현상으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이주노동자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배혜진, 2023).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의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해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4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이다(법무부, 2022). 특히, 23년도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제조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1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1만명을 더해 ‘1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04년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제도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작업환경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한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열악한 노동 및 주거환경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의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다.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 열악한 작업환경, 빈번한 산업재해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낯선 한국에서 홀로 생활해야만 하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새롭게 익혀야 할 것들이 난무한 낯선 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아 발생한 사소한 오해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업장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편견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국

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장시간 노동(56.6%), 한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41.2%), 빠른 작업속도(41.1%), 임금체불(39.0%) 등의 순으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산업재해,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 사업장에서의 조롱과 욕설, 회사에서의 몸수색, 여권 압류,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한국행을 준비하는 자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까지 한국어 공부, 비자 자격 취득, 이주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자국의 온 가족이 함께 부담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준비를 하면서부터 생긴 빚으로 인해 입국 후에는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과 더불어 빠른 빚 청산에 대한 부담도 갖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낯선 타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이주노동자라는 지위에서 오는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인권침해를 겪는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근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터부시하는 3D업종에서 주로 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에 맞지 않는 장

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산업 재해를 경험하기도 하며 산업재해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끔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집단 상담을 받거나 자조모임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외부 지원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고용허가제 외에 방법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나, 국적에 따라 입국한 인원이 매우 소수이거나, 사업장이 농어촌에 있는 경우는 정보의 접근이 더욱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및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배제 경험이 가중되면서 불안, 우울, 적대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었다(정선영, 오영림, 배이진, 2013).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네팔·미얀마·중국 이주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와 우울증, 자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전문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102명 중 33.4%인 34명은 경도 이상, 20.6%인 21명은 중등도 우울 상태를 보였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여도 혹여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까 우려해 외부 전문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청년의사, 2021, 9, 8).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 사실이 흠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이 아직도 만연하다. 마음의 병을 ‘정신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의지하는 것을 유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숨길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에

제도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문턱이 높은 만큼 이주노동자의 접근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익숙하게 살아온 출신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로의 이주는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심리적·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양옥경, 김연수, 2007). 이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꺼려, 본인의 증상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들은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노동자 자살 예방 사업, 온라인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한 가지인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행동 반응을 촉진한다(김오남, 2007; Cohen & Wills, 1985).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원조와 도움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오영란, 2004; House, 1983; Kaplan, Cassel, & Gore, 1977; Lin, Dean, & Ensel, 1986). 이는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 자원으로서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진희, 박옥임, 2008; 송인영, 김영화, 2011; Wang Hong Pi, 2015). 또한 이주노동자의 현지어 능력도 이주노동자가 이주한 사회의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돕고,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해주는 등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은애, 최영, 2010; Ataca & Berry, 2002; Tsang, 2001).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는 동안 이주노동자 연구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양해졌다. 이주노동자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직장과 일상생활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이정환 외, 2007). 연구 주제들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어 왔던 인력 도입 및 고용정책(설동훈, 2006), 인권(김철효

외, 2006), 지원단체(설동훈, 2004) 사회적응(노충래 외, 2006)에 덧붙여 젠더(이혜경 외, 2006), 거주공간(장연진, 2006),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이정환, 2005), 한국어 교육(김정은, 2006), 건강(이정환, 2007), 여가(백정숙 외 2006) 등으로 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며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다문화 가정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심리 내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안슬기 외, 2021). 이주노동자 연구는 정부기관에 의해 의뢰되어 진행되었고 기술적인 연구와 현황 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외국 인력 활용 정책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주노동자에 관한 논문을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문화 적응, 정신건강,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 등에 집중하고 있었다(양영란, 김혜영 2021). 연구 주제어의 빈도분석 결과로는 ‘직무스트레스’, ‘우울’, ‘문화 적응’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문화 적응과 스트레스, 우울 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는 낯선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며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향후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심리적 적응은 이주노동자의 성별, 연령, 성격, 교육 수준, 소득, 국적, 문화적 경험, 언어능력, 사회적지지, 차별 경험 등 그들이 가진 개인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Berry, 2005; Searle & Ward, 1990). 이는 이주노동자의 이주 사회에서 심리적 만족 혹은 행복과 관련되는 것이다. 개인이 경험한 환경에 따라 친밀감, 안정감, 만족감을 가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위한 보고서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조사로는 이주노동자의 개인적·문화적·사회적 삶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스트레스도 있어 이중적인 압박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혜정 외, 2015).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심리적 적응 경험을 보고한 다양한 보고서, 논문 연구들 중에서 질적 연구물만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개별 연구물을 질적 메타분석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물들이 제시하는 연구 결과로부터 축적된 지식보다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도출하고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양적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내용 등을 파악하여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상담사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적응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다문화상담의 한 분야로서 이주노동자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기여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여 일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체류하는 경험에 대한 연구 자료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파악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대처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적응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적응 경험의 유형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노동자, 심리적 적응 및 질적 메타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이주노동자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을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라고 명명하고 있다(법제처, 2023).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기존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에서 고용허가제 및 기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교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이주노동자’라고 정의한다.

나.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이란 개인의 내적·심리적 결과물로서 명확한 개인적 정체감, 정신건강이 좋은 상태, 개인적 만족의 성취를 가진 상태를 말한다(Searle & Ward, 1990).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는 신체적 질환, 적대감,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후들과 긍정적 지표로서 생활만족도, 삶의 질, 자아 존중감 등이 사용되어 왔다(정은희, 2005).

본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이란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심리적 변화의 현상을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일상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다.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이란 소수의 사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연구물 간 연구 결과를 범주화하여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이정숙, 2017). 즉, 연구 주제의 유사성이 높은 질적 연구물들의 개별적 사례를 확인하고 연구물 간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나장함, 2008a; 이정숙, 2018). 환경과 상황, 적응, 문화, 공동체 관계 등의 공통 요인들이 많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례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 방법의 특징은 개별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를 고차원적 이론적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새로운 해석 가능성과 이론적 생성을 도모하여 종합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오은주, 고진호, 2021).

본 연구에서 질적 메타분석은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여러 질적연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해석, 합성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서 의미 있는 공통 경험과 심리적 적응 경험의 맥락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심리적 적응, 질적 메타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단기 이주노동 유입 정책을 펴면서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1991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로 처음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급조된 제도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되었고, 2004년 8월 17일부터 동남아시아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인력을 도입하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외국 인력 도입 초창기에는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 노동자의 유입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10년 전부터는 한국 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감이 증대하면서 정책적으로 더욱더 다양한 채널로 이주민들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주노동자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박래영, 1993; 설동훈, 1992a, 1992b),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강수돌, 2002; 김승만, 2011; 차옥승, 2013; 한동우, 2002), 사회문화 적응(김영정, 2009; 김영주, 2009; 구차순, 2007; 우국희 외, 2010; 최혜지, 2009), 법적 지위 등 인권적 측면(김종일 외, 1995; 부종식, 2012; 조흠학, 2010),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유길상 외, 2004) 등으로, 그들 입장

이 아닌 내국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킬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19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족 결합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인권적 처우는 물론 강제노동과 산업재해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정체성(김정하, 2007; 이현정, 2001),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관련(김영준 외, 2005; 김희걸 외, 2005; 심규범, 2002; 조진경, 2003) 및 안전보건 및 건강 관련(김규상, 2008; 박수만, 박종태, 2006; 박수만 외, 2007; 이관형 외, 2009; 이병운, 고준기, 2010) 등의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져 그들을 사회구성원의 한 집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적인 실태조사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과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노지현, 2014).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김선임, 2010; 이선옥, 2005; 이호선, 2010)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객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도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상이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 준 연구(박경태, 2001; 이민경, 김경근, 2012)들이 있다. 이민경, 김경근(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족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노지현, 2014).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모국의 민족성과 문화에 따라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모국의 민족성 및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김선임, 2010; 임선일, 2011)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집단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신순영, 2009; 이민경, 김경근, 2012)은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양산하고 파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이슈나 상황과 이주노동자들을 연관시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회구조적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들(노지현, 2015a; 이선옥, 2005)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 연구(노지현, 2014; 이은비, 강진숙, 2013; 정혜숙, 2010)는 이주민에 대한 공생 교육을 바탕으로 그들과의 직접적인 잦은 접촉 경험은 그들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외에도 성별이나 국적에 따른 세분화 된 접근(김영숙, 2011; 노지현, 2015a; 이덕남, 2012; 이해웅, 2014; 한건수, 2005)들도 이루어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 과정에 대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다(김범준, 김준경, 2018). 이러한 연구 동향은 이주노동자를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주체성을 수용하고 이주노동자의 입장과 시선에서 현상을 분석하려는 관점으로 방향이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외로움,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슬픔, 우울증, 불안, 신체화 증상, 편집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중독 등의 상황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Potocky,

2002).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우울, 생활만족도, 삶의 질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외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이선웅 외, 2009; 전해정, 이가연, 2015).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심리적 적응 경험들을 질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심리지원 및 상담사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적 적응

적응(adapt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00).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적응이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문화변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접한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Berry & Sam, 1997).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적응은 환경에 적절하고 유익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외부 세계의 현실에 적당히 맞추는 활동과 환경을 바꾸거나 더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이끄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미국정신분석학회, 2002). 특히 이주과정에서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처 능력은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주해 온 새로운 환경과 언어, 문화, 사회규칙 등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으면 이주 노동자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Ward(1990)는 적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며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생활에 적응 및 조정하는 능력이다. 문화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새로운 문화 내에서 거주기간, 문화에 대한 인식, 네트워크, 문화적 거리감, 언어 수준 그리고 문화변용 전략 등과 관련된다.

심리적 적응이란 정서적인 것으로 심리적 만족 혹은 행복과 관련되는데, 즉 이주사회 내에서 사회적지지, 대처 스타일, 개인의 유연성,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충격(Bhugra & Jones, 2001), 사회경제적 변화(Cheng et al. 1999), 인종적 편견과 차별, 불안정한 지위(이순희 외, 2009; 임영규, 2007) 등은 우울 혹은 불안 등의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은 외로움, 스트레스, 회피적인 대처 스타일과 연관되며 이는 삶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적응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노동자에게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소외감, 정체감의 혼란, 문화적 이질감, 좌절감, 절망감 등 정신건강의 문제와 높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김영란, 2007; 이덕남, 2011; 박두석, 2017; Berry, 1997; Williams & Berry; 1991).

Ward과 Kennedy(1999)는 실제 조사에서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와 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정체성 혼란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수반하는데 그 결과 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새로운 사회 내 통합을 어렵게 하고 위기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는 사회적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문화적 비양립성, 법적 거주 신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동력 이동은 자본과 상품의 이동과는 달리 추상적 노동력 뿐 아니라 인간의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이다(정은희, 2005). 즉,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함께 문화·언어·신념체계 등을 꾸러미로 갖고 유입되는 것이다(설동훈, 1996).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유입국의 경제·사회·문화체계와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정은희, 2005).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은 자기 발전과 심리적 안녕, 더 나아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응의 실패는 사회적 낙오와 좌절, 갈등, 사회적 손실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적 적응은 주로 우울 적도나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고, 다양한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이주노동자의 반응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이주한 사회의 언어, 생활 방식, 가치와 같은 환경적·문화적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의미하고, 대처란 이주자가 그러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보유한 자원으로서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지지를 포함한다(유승희, 2020).

특히 사회적지지는 이주노동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안정감을 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은 한국 생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과 생활 속에서 경험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지하고 평가한 개인의 삶의 만족감 높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한

다면 그들의 삶의 질, 적응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근에 상담 및 교육 분야에서 나장함(2008b)의 연구를 시작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주인석 외, 2021).

질적 메타분석은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개별 질적 연구물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주제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확장적인 해석과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개별 질적 연구물의 결과를 재범주화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별 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합친다는 측면에서 양적연구의 메타분석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적연구의 메타분석은 관련 주제 분야의 문헌 고찰을 통해 결과의 요약, 기술과 비판, 일반화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 결과는 관련 일차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하여 부분의 합 이상을 제시하여야 하고 결과의 해석을 강조한다(Finlayson & Dixon, 2008; Thorne, Jensen, Kearney, Noblit, & Sandelowski, 2004).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에서 알아내지 못한 패턴이나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연구의 목적이 개별 연구 결과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개별 결과들을 해석적 가능성을 확장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andelowski et al., 1997). 이는 양적 연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 상담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풍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손은정, 2010).

Ⅲ. 방 법

본 장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개발,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와 일반화와 같은 포괄적인 관점을 목표로 한다(Zimmer, 2006). 이는 일차 연구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상성이 증가한 이론의 구축과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로부터 나온 정보는 실무를 안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다. 연구 영역 내에서 질적 연구를 조직화하고 기술함으로써, 사용 가능하고 광범위한 문헌을 통합하여 수용된 결과와 결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연구 영역에 대한 연구 특성의 개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질적 메타분석의 결과는 추후 연구와 질문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되는 공감을 만들 수도 있다(손행미, 2020).

그리고 연구 영역에 대한 단순한 평론이 아니라 존재하는 질적 연구 결과를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질적 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연구 현상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여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Aspfors & Fransson, 2015; Na, 2008; Thorne, 2017). 다만, 질적 메타분석 절차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Noblit와 Hare(1988)와 이정숙(2017)은 7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최명희와 김진숙(2016)은 6단계로 질적 메타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개별 연구물에 대한 해석적 종합·분석 방법을 통한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정은 ① 시작하기(연구 주제와 연구문제 정하기), ② 초기 관심사 관련 연구물 검색과 선정하기, ③ 개별 연구물 읽기 및 분석(주제·개념정리), ④ 연구물 간의 관련성 찾기, ⑤ 연구물 간 연관 분석하기, ⑥ 해석 종합하기, ⑦ 종합내용 표현하기의 질적 메타분석의 7단계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절차는 아래 제시된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질적 메타분석 연구절차 및 본 연구의 연구절차

단계	연구절차	내용
1	연구주제와 연구문제 정하기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경험’을 연구주제로 설정
2	초기 관심사 관련 연구물 검색 및 선정	‘이주노동자’, ‘적응’ 등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분석대상 논문선정
3	개별 연구물 확인 및 분석	자료코딩 및 범주화
4	연구물 간 관련성 찾기	연구간 상호 비교, 분석
5	연구물 간 연관 분석하기	결과 도출
6	해석 및 종합	종합적 결과 도출
7	종합 내용 표현하기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 총 10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질적 메타분석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진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 문헌 선정 기준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찾기 위해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문헌을 검색하였다. ‘이주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 ‘적응’, ‘우울’, ‘스트레스’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 대상 목록을 선정하여 이주노동자와 심리적응을 AND로 연결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한정하였으며 이주노동자는 조선족, 고려인 동포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연구들을 전부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 분석 방법, 현상학적 분석 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한 논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해진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연구물이고 질적 연구만을 분석 대상 연구물로 포함하였다. 반면, 분석 대상 연구물에서 제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질적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결과만을 제시한 경우와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문헌 검색 결과 KCI에서 139편, RISS에서 422편, DBpia에서 262편으로 총 823편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된 논문 191편을 배제하였다. 632편의 관련 연구 중 제목과 초록을 살펴본 결과

주제 부적합, 질적 연구가 아닌 561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총 71편의 연구가 1차 선정되었다. 선정된 논문의 전문을 확인한 결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지만 대상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들어있지 않은 논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쓰인 논문, 축어록이 미기재된 논문 60편을 2차로 제외하여 11편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질적 방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논문 1개를 더

제외하여 1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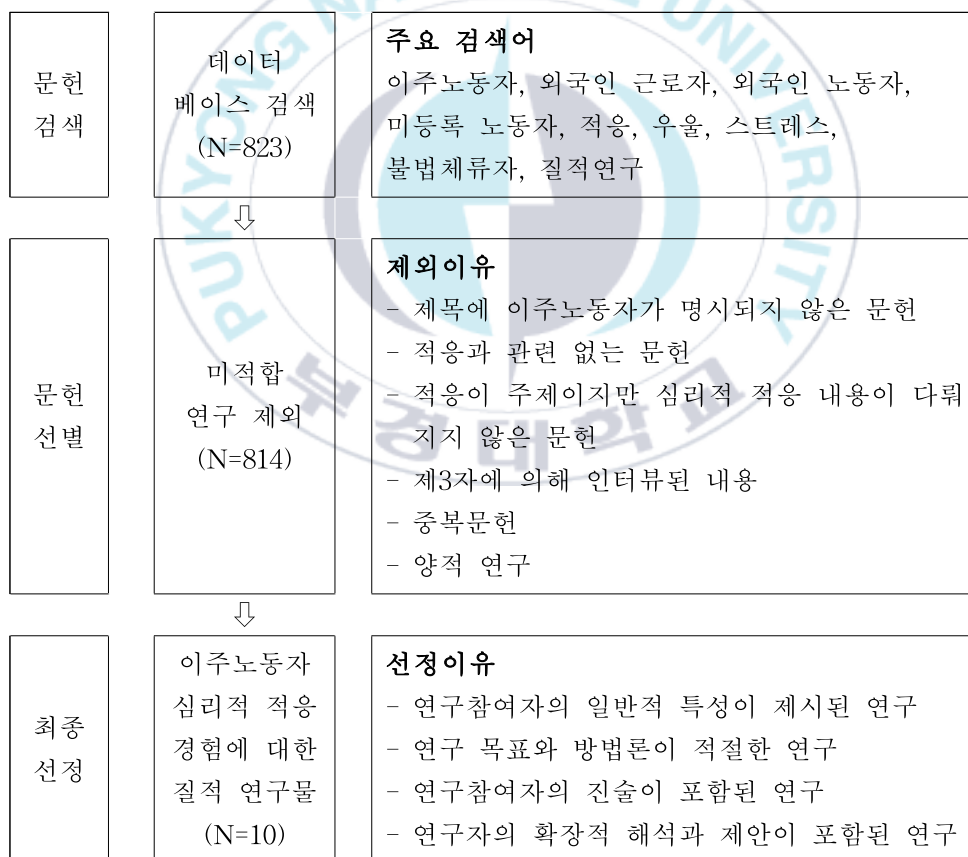


그림 1. 분석 대상 선정과정

3. 자료분석

선정된 10건의 연구물을 연구자, 출판년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대상, 주요결과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Nobilt과 Hare(1988)가 제시한 분석 세 번째 단계를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10편 연구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이주 후 개별적으로 경험의 차이가 있는 논문임을 염두에 두고, 개별 연구 내 경험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분석 틀에 맞추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와 논의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주제와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개별 연구 관련 개념 사례 간 분석 틀에 제시된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심리적 적응 경험과 관련된 해석적 비유와 관련된 개념 등을 모아서 작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연구 간 관련성을 찾기 위해 개별 연구물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유사 주제와 개념을 묶었으며 다섯 번째 단계로 분석 대상 논문을 비교하고 연관 분석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로 각 관련 개념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원 연구자의 해석을 찾아내고 이와 맥락을 같이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확장적인 해석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중심이 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하여 연구 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의 7단계를 참고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 간의 연관성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해석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와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 상담심리를 전

공하고 질적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상담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 2인,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감수자 1인이 자료 분석의 절차에 따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분석 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자들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분석 대상 논문을 확인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명의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손행미, 2020).

질적 메타분석에서 분석한 일차연구 논문의 검색과 선정, 그리고 질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질적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 제기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차연구 논문을 선정하고, 질 평가에도 구체적인 평가 안내나 평가도구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Paterson et al., 2001). 이는 연구자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빠트리지 않고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연구의 질 보장에 중요한 역할이고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가 독립적인 질 평가에 근거하여 일차 연구를 배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DeJean et al., 2013).

질적 메타분석은 선정된 개별 질적 연구물들의 질적인 평가가 질적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 하지만 질적 연구물들을 평가하는 연구방법론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행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들 간에 선정된 연구물에 대한 질 평가에 대한 이견이 많다(나장함, 2008b).

질적 메타분석에서 질 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접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 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자의 의사결정과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물의 질 평가 도구라면 더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 분석에서 질적 연구물의 평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화 된 평가 도구인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18)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입증에 위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를 위해 11편의 논문을 3명의 연구자가 CASP 평정을 사용하여 해당 문항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며 개별 논문을 교차로 평가하며 진행하였다. 같은 논문에 대해 연구자들의 평가가 다른 경우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재논의를 통해 질적 연구물의 수준 중 연구 설계가 미흡한 연구 1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질적 연구물의 평가는 총 10문항으로 대표 문항과 대표 문항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되고 문항에 대한 답으로 예, 아니오 또는 무응답으로 표시하였다.

질적 연구물의 평가를 위한 질문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질문 및 코딩	연구 1	연구 2	연구 3	연구 4	연구 5	연구 6	연구 7	연구 8	연구 9	연구 10
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Y	Y	Y	Y	Y	Y	Y	Y	Y	Y
연구설계가 연구 목표를 다루는 데 적절한가?	Y	Y	Y	Y	Y	Y	Y	Y	Y	Y
연구 목적에 적합한 모집 전략이었나?	Y	Y	Y	Y	Y	Y	Y	Y	Y	Y
데이터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나?	Y	Y	Y	Y	Y	Y	Y	Y	Y	Y
연구자와 참가자 간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Y	Y	Y	Y	Y	Y	Y	Y	Y	Y
윤리적 문제들이 고려되었는가?	Y	Y	Y	Y	Y	Y	Y	Y	Y	Y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	Y	Y	Y	Y	Y	Y	Y	Y	Y	Y
결과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이 연구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합 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Y=예, N=아니오, ?=무응답

이에 평가표의 내용은 아니오, 무응답 항목이 없었으며 선정된 논문 10편 모두 10점으로 평가되었다.

IV.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는 표 3과 같다. 이주노동자 적응과 관련한 질적연구는 2010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생애사 1편, 현상학 6편, 근거이론 2편과 상호작용적 접근모델을 이용한 질적연구 1편이다. 10편 모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수는 2명에서 22명으로 다양하며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번 호	저자 (연도)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결과
1	이효선 (2010)	5년 이상 한국 거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자	새로운 환경 적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탐색 및 삶 이해	생애사 (F.Schutze)	2명	4단계 분석방법

번 호	저자 (연도)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결과
2	이덕남 (2012)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체험의 본질적 의미	현상학 (Van Manen)	6명	네 가지 실존범주를 중심으로 본질적 의미구성
3	이남주 (2015)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남편을 중심으로 이주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한국생활 적응경험의 영향	근거 이론 (Strauss & Corbin)	8명	97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범주, 최종 11개의 범주 도출
4	노지현 (2015)	산업재해 전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산업재해 후에도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산업재해 경험 후 삶의 경험과 산업재해의 의미와 본질	현상학 (Giorgi)	9명	382개의 의미단위, 92개의 중심의미 구성, 23개의 주제 추출
5	노지현 (2016)	산업재해 전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산업재해 후에도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산업재해 후 삶의 의미와 본질 연구	현상학 (Van Manen)	13명	121개의 의미단위, 주제 38개, 본질적 주제 9개 추출, 네 가지 실존범주 의미탐구

번호	저자 (연도)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결과
6	노지현, 강선경 (2016)	산업재해 전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산업재해 후에도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산업재해 이후 한국 생활 경험과정	근거이론 (Strauss & Corbin)	22명	404개의 개념도출, 93개의 하위범주와 29개의 범주로 분류
7	박두석 (2017)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취업 이주 후 물리적, 심리적 적응경험 문제와 적응자원	현상학 (Colaizzi)	8명	11개의 구성적 의미, 36개의 주제, 12개의 주제군 도출
8	최나연 (2022)	체류자격을 가지고 비숙련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	한국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경험 탐색	현상학 (Van Manen)	5명	4가지 본질적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도출
9	최경식 (2023)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한 저숙련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국 생활 적응과정 경험에서 나타는 사회적 배제	질적연구, 상호작용적 접근 모델 (Maxwell)	11명	4개의 주제, 13개의 범주분석, 39개의 패턴분석, 749개의 의미단위

번 호	저자 (연도)	대상	주제	연구 방법	참여 인원	결과
10	박지윤, 박은민 (2023)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중 평가에 합격한 자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내 삶의 경험 이해	현상학 (Colaizzi)	8명	90개의 의미구성과 31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 도출

선정된 논문은 총 10편으로 분석 대상 연구물의 참여자는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총 15개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국적취득자를 포함하여 총 92명이며 이들 중 남성은 56명, 여성은 36명이고 평균나이 30-50대인 이주노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2.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들의 연구 목적과 이에 따른 연구 설계 등을 Noblit과 Hare(1988)의 7단계 절차에 따라 심리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상 간의 유사한 대주제를 묶어 나가며 분석하였다. 선정된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각 연구물의 연구 목적, 주요 결과와 중심 주제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한 후 9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단계별로 부정적 심리 적응, 긍정적 심리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들의 구체적인 하위범주 분류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분석 결과표

범주	하위범주	하위요인	사례번호
부정적 심리 적응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 장애	2, 4, 5, 6, 9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아픈 몸	2, 4, 6, 9
	체류신분 때문에 불안함	숨죽여 일만 함	1, 2, 6, 9
		부당해도 맞서 이야기하지 못함	1, 4, 6, 7, 9
	차별을 받음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 차이가 남	1, 6, 9
		노동만 강요당함	1, 2, 5, 9, 10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함	2, 3, 4, 5, 6, 9
	정체성 혼란	서로를 고발하는 동료	1, 4, 5
		혼란스런 나의 마음	3, 4
	외부와 단절된 삶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함	1, 2, 3, 6, 7, 8, 9, 10
아파도 혼자 버텨냄		4, 6, 9, 10	
가족과 멀어짐		1, 2, 4, 6, 7	
긍정적 심리 적응	한국 문화에 익숙해 짐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2, 3, 10
		한국어 의사소통이 편해짐	1, 10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체류자격이 변경됨	1, 10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음	1, 7, 8, 10
	사회적지지 체계가 만들어짐	지원단체에서 도움을 받음	1, 3, 4, 8
		동료들이 나를 도와줌	1, 3, 6, 9
		내가 동료들을 도와줌	1, 3, 8
	고국의 가족과 나은 미래를 희망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가족	1, 2, 7, 9, 10
		귀국 후 삶의 기반이 생김	2, 9, 10
		가족의 자랑이 됨	2, 10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1차 구성을 부정적 심리 적응, 긍정적 심리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구성요소로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함’, ‘차별을 받음’, ‘정체성 혼란’, ‘외부와 단절된 삶’, ‘한국 문화에 익숙해 짐’,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사회적 지지체계가 만들어짐’, ‘고국의 가족과 나쁜 미래를 희망함’ 총 9가지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를 파악하여 개별 분석 대상 질적 연구물 간 해석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대상 연구들 간 해석

번호	구분	부정					긍정			
		신체 적 고통 과 불편 감	체류 신분 때문 에 불안 함	차별 을 받음	정체 성 혼란	외부 와 단절 된 삶	한국 문화 에 익숙 해 짐	한국 에서 당당 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사회 적 지지 체계가 만들어 짐	고국 의 가족 과 나은 미래를 희망함
1	이효선 (2010)	X	○	○	○	○	○	○	○	○
2	이덕남 (2012)	○	○	○	X	○	○	△	△	○
3	이남주 (2015)	△	○	○	○	○	○	○	△	○
4	노지현 (2015)	○	○	○	○	○	X	X	○	X
5	노지현 (2016)	○	△	○	○	△	X	X	X	X
6	노지현, 강선경 (2016)	○	○	○	X	○	X	X	○	X
7	박두석 (2017)	X	○	○	○	○	△	○	△	○
8	최나연 (2022)	X	X	X	△	○	○	○	○	○
9	최경식 (2023)	○	○	○	X	○	X	△	△	○
10	박지윤, 박은민 (2023)	X	X	○	△	○	○	○	○	○

○: 관련 내용 있음, △: 관련 내용 부분 또는 일부 있음, X: 관련 내용 없음.

분석 대상 연구들 간 해석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다른 연구물에 비해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연구물의 경우에 특히 더 긍정적인 심리 적응이 매우 적게 나온다는 점이다.

가. 부정적 심리 적응

부정적 심리 경험에서는 크게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함’, ‘차별을 받음’, ‘정체성 혼란’, ‘외부와 단절된 삶’ 5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각 범주의 세부 내용에 따라 12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1)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자국의 언어로 표현해도 타국에서는 알아주는 이가 없다. 무리하고 과도한 노동의 결과로 얻은 장애,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몸의 상처로 나타났다. 장시간,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짐을 느끼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러다 결국 손가락이 잘리거나 누가 죽어야 병원을 찾아가고 남은 건 부상과 장애를 가진 몸이다.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 장애

사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기계들을 다룬다. 한순간에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자신의 신체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장애가 남은 신체와 엄청난 병원비를 걱정한다.

“(일하면서 다친 적은 없어요?) 가벼운 상처는 있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굉장히 칼처럼 날카로워요. 실수해서 떨어지면 큰 사고 생겨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요?) 냉장고 부품 만들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 베트남에서 왔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근데 발을 다쳤어요. 정맥을 다쳐서 그 사고 후에는 잘 못 걸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저 똑같이 팔, 손 등 칼에 다친 것처럼 상처 많이 있어요. (다친 친구는 치료 잘 받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앞으로는 잘 못 걸어요. 라고 했데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 그동안 일해서 돈 모은 거 병원비 다 썼어요. 회사 과장님 조금 도와주었고, 회사에서는 많이 도움 안 주었어요. (그 친구는 병원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할 수 없이 준비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아직 베트남 안 가고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물 2)

“손가락 한 마디 반이 날아갔거든요.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에 바캉스간다고 텐트를 많이 주문해서 계속 철야 작업을 했어요. 천막 원단은 기술자들이 기계로 재단해야 하는데, 한국사람 기술자 휴가 가서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이 저보고 오래 되었으니까 자르라고 해서 원단 재단 작업하다가 손가락 하나 잘렸어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잘린 손가락 보니까 손에서 피가 수돗물처럼 콧콧 쏟아지구요. 그 피 보니까 목이 잘린 것보다 더한 무서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손 보면 그때 아팠던 게 생각이 나고, 목이 아프고 잘린 것처럼 그랬어요(연구참여자 2).” (연구물 4)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아픈 몸

이주노동자에게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아픈 몸도 아픈 몸이지만 일하는 시간과 양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은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치료비 못 받았어요. 그 홀은 일당제예요. 하루에 4만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병원 많이 가고 싶었는데, 의사선생님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약국에 갔습니다. (이하 중략) 약국 사장님이 무슨 연고 바르라고 했어요. 저는 일당을 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연고 사지 못했어요. 모은 돈 ○○으로 보냈어요. 연고 사지 못했어요. (손을 보여줌) 불난 거 남아 있어요(연구참여자 5).” (연구물 4)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픈 손으로 참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 가서 의사의 새로운 처방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픈 채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요. 아파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연구참여자 11).” (연구물 9)

2) 체류신분 때문에 불안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허가제로 체류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 동포비자,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3개월이 지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비자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져 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체류자격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비자 자격으로 인해 모욕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추방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다.

숨죽여 일만 함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단속이 진행되어 강제추방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체류비자를 미끼로 삼아 노동을 착취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노동자들은 숨죽여 일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직장에서 A의 불법체류자 신분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지만, 한국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있는 기피하는 직종이어서 힘들어도 참고 일함. (연구참여자 A, 연구물 1)

“허리가 아프고 다리고 아팠지만은 사장님이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니까저는 일했어요. 그때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 저하고 친구예요. 라오스, 베트남 사람들 들어왔어요. 사장님은 그랬어요. 인제 너 나가도 돼, 말했어요. 매일 잔업 철야했어요. 허리가 더 아팠어요(연구참여자 10).” (연구물 6)

부당해도 맞서 이야기하지 못함

낮설고 고된 환경에서 참고 일하던 노동자들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강제 추방이라는 두려움 보다는 덜 무섭다. 그저 참고 견뎌낸다.

“저 머리 때린 언니한테 왜 때려요? 심부름하기 싫었습니다. 컴플레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컴플레인하면 한국 사람들 아임 쏘리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너 신고한다 그러니까. 저는 불법체류 말 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매우 빠

룹니다. 신고한다 신고하면 너 벌금 낸다. 니네 나라로 쫓아낸다.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보고 싶었지만 신고한다는 말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 신고한다고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저 신고한다 말했는지 그 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이고, 타일랜드 한국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타일랜드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연구참여자 11).” (연구물 6)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할 때는요. 저네들 좀 편할라고 사람을 억수로 많이 부려 먹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저네들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 ‘불법신고 할거야’라고 사람 겁을 주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방법 없잖아요.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죠(연구참여자 4).” (연구물 7)

3) 차별을 받음

고용허가제로 체류비자를 받고 들어왔지만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업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한 연차가 높아져도 임금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면, 자신이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비하하고 욕설을 내뱉는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잘 모른다고 차별 당한다.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 차이가 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본국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액수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해 다른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적게 받는다.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지만 자신이 외국 사람이란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B, 연구물 1)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하고는 임금 차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저는 쓰미 미장일 다 할 수 있는데, 한국 쓰미 미장 기술자는 15~16만원 줘요. 17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17만원 줄 때 저는 15만원 받아요. 불만은 많은데, 오야지한테 술 먹다가 그러면 너는 그 일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일 끝나고 세 봤어요. 벽돌 보통 우리 기공들이 기본으로 하루에 2500장 이상 쌓아야 하거든요. 근데 원 마이로 쌓으면 힘들지만 투 마이, 세 마이로 쌓으면 삼천, 사천, 오천 장 쌓는 사람도 있어요. 세어 보니까 17만원 받는 사람 그날 3800장 쌓고, 저도 그 정도 쌓는데. 항상 느끼죠. 근데 그 사람은 A급 기술자. 저는 B급 기술자인 거죠. 근데 쌓는 양도 똑같고, 판단하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연구참여자 19).” (연구물 6)

“CNC일을 하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잔업도 가능하고 수당도 더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인들만 CNC일을 하게 합니다. 외국인은 단순노동 중에서도 3D직종인 사상일만 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직무 기회의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CNC일은 수당과 보너스가 있지만, 사상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연구참여자 1).” (연구물 9)

노동만 강요당함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소외당한다. 쉬는 시간에 한국인 노동자는 일하지 않지만 이주노동자는 쉬는 시간이 없다. 쉬는 사람은 게으

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날씨 나쁜 날만 일 안 해요. 일요일, 빨간 날. 안 쉬고 계속 오징어 잡았어요. 바람, 비, 너무 날씨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일 항상 하니까. 너무 힘들어 배 안에 있어 하니까 멀미. 배 멀미 너무 계속하니까 머리 아파, 배 아파. 너무 힘들고 밥 안 먹고 일하고. 힘들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약 주고 쉬고 해야 하는데, 한국 사장님 계속 일 시켜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아프면 보살펴 주는데, 한국 사람들 계속 일만 시켜요(연구참여자 3).” (연구물 2)

“저는 일하면서 잔업철야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허리 너무 아프다. 잔업 철야 안 하겠다. 말했어요. 사장님은 말 안 했습니다. 공장장이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었지만 사장님 공장장님 막 욕했어요. 한국 사장님들은 새끼새끼하고 게으른 새끼 그렇게 얘기합니다(연구참여자 6).” (연구물 5)

“저는 회사 측의 추가 근로 요청에 거부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거부하고 기숙사에 간다고 해도 (사내)기숙사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몸이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일을 거부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그냥 약 먹고 버틴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5).” (연구물 9)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함

한국에서 제일 처음 듣는 말은 대부분 나쁜 말이다. 이름은 불리지 않으며 나이를 따지는 한국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반발이다.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면 이주노동자에 막말을 쏟아낸다.

“태국사람 한국 사람보다 피부색 틀리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요. 태국에는 발전하지 않고 한국보다 더 못 산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집에 티비 있냐?, 집에서 수저 있냐?, 손으로 밥 먹냐?, 자동차 있냐? 냉장고 있냐?. 하하하. 특히 나이 많이 된 사람 이렇게 질문해요(연구참여자 5).” (연구물 2)

“한국 환자들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화장품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 환자들 저 싫어했습니다. 리모컨 던진 언니가 다문화 거지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저한테 화나면 다문화 거지년 그랬습니다. 거지는 이곳 ○○에 와서 알았습니다. 배겨입니다. 저는 거지 아닌데, 거지 취급받았습니다(연구참여자 11).” (연구물 4)

“한국사람은 베트남 사람을 키가 작다고 무시합니다. 베트남은 강한 민족이에요. 미국도 프랑스도 다 이겼습니다. 중국도 베트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베트남 사람 많이 무시합니다. 저한테 베트남 하다가 ‘야, 꼬마야 꼬마야’ 합니다. ‘나 꼬마 아니야. 어른이야.’ 하니까 ‘이 새끼 반말해?’ 그러면 서 세 사람이 때렸습니다(연구참여자 5).” (연구물 5)

“공장에서 일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저보고 네팔 병신이라고 많이 놀렸어요. 내가 왜 병신이야? 그러면 사람 팔이 두 개데, 너는 팔이 네 개니까 병신이지 이라고 놀렸습니다. 네팔은 저의 나라고, 나라 이름인데, 한국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연구참여자 8).” (연구물 6)

한국 사람들은 제게 항상 욕을 했습니다. 아예 저를 부를 때 “씨발 새끼야”라고 이름 대신 불렀어요. (연구참여자 9, 연구물 9)

4) 정체성 혼란

어렵게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같은 이주노동자이지만 비자가 있고 없고 차이를 따지며 편을 나누고 동포라는 이중국적이 있음에도 너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며 배척한다.

서로를 고발하는 동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작업환경의 일자리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그 자리에 내가, 내 지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 스스로 경찰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신고를 하기도 한다.

A는 새로 들어온 해외 산업 연수생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임금과 A의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 연구물 1)

“저 옆에 옆에 옆에 비닐하우스 장미 아니고 백합, 안개꽃 합니다. 안개꽃 비닐하우스에 타일랜드 사람있습니다. 타일랜드 사람 타일랜드 우먼에게 꽃 장미 백합 안개꽃 줍니다. 주인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안개꽃 비닐하우스 사람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타일랜드 사람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우즈벡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즈벡사람 들어오고, 했습니다(연구참여자 8).” (연구물 5)

혼란스런 나의 마음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체류비자 변경으로 인해 귀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짓궂은 주변인들은 이를 장난처럼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즈베크에 가면 고려인 고려로 가라고 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크으로 가라고 해요. 우린 누구야?(연구참여자 아내 1).” (연구물 3)

“저 공장 조그만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리. 요꼬공장도 있습니다. 요꼬공장에는 한국사람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사람 없습니다. 요꼬공장 다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 남편들하고 같이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 저한테 ‘너 한국사람이니, 베트남 사람이니’ 묻습니다. 그럼 전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 출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할래?’ 제가 한국 사람한테 듣는 말입니다. 베트남 맞습니다. 저는 베트남 출신이지만, 한국사람입니다. 그래도 묻습니다(연구참여자 2).” (연구물 4)

5) 외부와 단절된 삶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고 입국한다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원활하지는 않다. 특히나 일터나 병원 같은 전문용어를 쓰는 곳이라면 듣기도, 말하기도 쉽지 않다. 낯선 곳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데 적응하기도 바쁜 노동자들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기 어려우며 한국에 갔는데 언제 생활비를 보내주냐고 물어보는 가족들과는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함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고 입국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기에는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낯선 환경에서 음식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동 시 알아보거나 들을 수 없는 말들은 이주노동자를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

“한국말을 몰라요. 어려워요. 식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맛이 달랐어요. 맛이 맵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물도 사고 싶었는데, 물도 못 샀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몰라서(연구참여자 아내 1).” (연구물 3)

“두통이 심했습니다. 막 칼로 쪼개는 것 같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머리 헤드 페인’ 얘기했습니다. ‘헤드에이크’ 했습니다. 간호사선생님은 헤드에이크 해도 저에게 ‘아가씨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갖다줬습니다. 그 약은 한국 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소화제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 친구 다시 말했습니다. ‘애 머리 아프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연구참여자 11).” (연구물 6)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잖아요. 뭐라 뭐라 정류장이나 역 이름을 말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 돈 벌러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곧 돈인데, 엉뚱한 데 내리게 되면 다시 타거나 뛰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몰라요(연구참여자 5).” (연구물 7)

“사실 불량을 낸 당시, 저도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엔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저처럼 처음엔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수준이 겨우 생존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말을 못하니, 설령 우리 잘못이 아니어도 변호를 할 수 없기에 억울하게 치욕과 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국말로 적극

적인 해명을 못 하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기계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야간조였는데 이건 정말로 제가 잘못된 것 하나 없는 순수한 기계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해야할지 몰라서 또 억울하게 야단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단맞을 때마다 억울하고 창피해서 울었습니다(연구참여자 8).” (연구물 9)

아파도 혼자 버텨냄

자국에서 한국에 가는 비자를 얻기 위해 많은 빚을 지고, 한국어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겨우 체류비자를 얻어 홀홀단신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돌봐주는 이가 없어 홀로 외롭게 아픈 몸을 돌본다.

“수술받으려고 가족들 없이 병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저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술받다 가족도 없이 혼자 이곳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가족을 수술받기 전에 초청해 보려고도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그걸 허락지 않았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물 9)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2015년에 많이 다쳤어요. 그냥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기숙사에 와서 2주일 넘게 있었어요. 그때 집에 말도 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어요. 몰라요. 얘기하면 걱정해요. 그냥 혼자 참았어요. 한 번은 돌이 다리에 떨어졌어요. 또 그때 혼자 참았어요. 말 못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혼자 참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연구참여자 4).” (연구물 10)

가족과 떨어져

이주노동자가 체류비자를 받아 최대기간으로 연장을 받으면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짧아 본국에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화나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또한 힘든 노동 후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본국의 가족들이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통화 횟수는 줄어들며 마음이 더 힘들기도 하다.

A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남자친구와는 올해 초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단속에 동시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연구참여자 A, 연구물 1)

더 나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철새따라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모두 뿔뿔이 헤어져 지내고 있다. 미등록 신분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보지 못해 심한 향수병에 걸려있다. (연구참여자 1, 연구물 2)

“(베트남에 있는 딸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아요?) 네. 보고 싶지만, 참아요. 할 수 없으니까요. 일해야 하니까 시간도 없고. 큰딸한테 엄마, 아빠 어땠냐고. 물어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라고 해요(참여자 5).” (연구물 2)

나. 긍정적 심리 적응

긍정적 심리 경험에서는 크게 한국문화에 익숙해짐,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사회적지지 체계가 만들어짐, 고국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냄의 4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각 범주의 세부 내용에 따라 9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주변인들과 함께하며 마

음을 나누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챙기는 여유가 생기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문화에 익숙해 짐

입국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한국어와 생활 적응으로 인해 고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고 느낀다. 어느새 가족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고 싶은 곳이 되었다.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이주 초기에는 언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만족하게 된다. 본국보다 나은 일터 환경과 임금도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에 정착하고 싶게 만든다.

“(한국에 와서 보니깐 베트남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베트남. 한국사는 것 오래돼서. 베트남 생각 많이 못하고.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한국 살기 편하니까요. 한국에서 오래 사니까 여기가 고향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도 있고. 가족 보고 싶어도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 못할 수도 있고. 한 번 한국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한국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장 있고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아요(연구참여자 5).” (연구물 2)

“비자 변경해서 와이프도 데려오고 좀 오랫동안 살면서 취득할 수 있으면 영주권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연구참여자 6).” (연구물 10)

한국어 의사소통이 편해짐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늘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를 계속 해서 공부한다. 이들은 유창해진 한국어로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글을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 있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 연구물 1)

“다른 사람보다 한국어가 잘 되니까 좋고 이제는 의사소통이 되니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도 제 말을 알아들어요(연구참여자 6).” (연구물 10)

2)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한 번 입국하면 내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꿀 수도 없어 적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무탈하게 한 사업장에서 인정받아 4년 10개월을 일하면 초기 입국과 달리 같은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비자로 변경할 수도, 고국의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체류자격이 변경 됨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정함이 있다.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어 시험, 임금 등 생활 능력 등을 증명하면 사업장 이동, 근무 기간부터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B는 한국 비자를 받게 되었다. 비자를 받은 후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 연구물 1)

“체류자격 바뀌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너무 슬펐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 뒤로 힘들었는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합격하고 자격 바꾸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연구참여자 2).” (연구물 10)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여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서류와 시험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다.

A는 직장생활에 차츰 적응해가며 인정받기 시작하여,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급여도 차등적으로 지급받아 한국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 연구물 1)

“공장이나 큰 식당,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차별 대우를 받다가도 열심히 하고 숙련도도 좋아지고 하면 한국 사람들과 차등 없이 대우를

받게 돼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연구참여자 8).” (연구물 7)

“회사에서도 날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별 같은 것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많은 일을 잘해서 저를 신뢰하는 편이었어요. 그곳의 과장님은 제가 사직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사직한다고 하자 이사님도 ‘아냐, 아냐, 사직하지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님도 저를 신뢰해 주셨거든요(연구참여자 10).” (연구물 10)

3) 사회적지지 체계가 만들어짐

홀로 온 낯선 나라에서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다면 한결 버티고 적응하기 쉬울 것이다. 국가 공동체, 지원단체를 만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낯선 타국에 와있는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다.

지원단체에서 도움을 받음

같은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법률이나 제도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 자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재해 이후 보상이나 치료, 비자 변경 등의 문제는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일하느라 한국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말에 운영되는 지원단체의 한국어 교실은 빛과 같다.

“교회 있어요. 한국말 공부해요. 예배드려요. 지금 한국말도 점점 더 많이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질거라 생각해요(연구참여자 남편 3).” (연구물 3)

“(산재 제도는) 알고 있었어요. 6개월 합법근로자일 때 산재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고났을 때,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니 모든 것이 되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퇴원하고 나니 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센터에 가서 상담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물 4)

“인천에 성당 같은 곳이 있어요. 교회, 성당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을 뿐인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질문하면 ‘일단 해볼게요.’,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대해주세요(연구참여자 2).” (연구물 8)

동료들이 나를 도와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만큼 반갑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낯선 타국에서 만나는 것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같은 경험을 한 누군가의 도움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도 한다.

“옆집 세탁소 아줌마 우리 아들 아플 때 병원 알려 줬어요. 약국, 휴대폰 가게, 카센타 필요한 곳 다 알려 줘서 우리 이제 단골 됐어요. 싸고 친절하게 대해 줘서 좋아요(연구참여자 아내 1).” (연구물 3)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힘이 됐어요. 언니들은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안다. 치료 끝나고도 가끔 연락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위안을 얻어요(연구참여자 22).” (연구물 6)

“처음 일을 배울 때 언어 문제로 그곳에 있던 동료 필리핀 근로자가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연구참여자 3·4).” (연구물 9)

내가 동료들을 도와줌

낯선 한국에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새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곁을 내어 준다.

“한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것은 한국말 언어예요. 처음 한국 와서 물도 못 사 먹었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처음 온 고려인 통역 도와줘요(연구참여자 아내 1).” (연구물 3)

“제 생각엔 아는 사람에게 제가 도움을 많이 줘요, 지금은 그래서 같은 러시아 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내가 여기에 적응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연구물 8)

4) 고국의 가족과 나은 미래를 희망함

이주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불안정한 고국에서 일을 구하기 힘들어 한국으로 노동을 하러 오기도 한다. 임금 수준이 고국보다 훨씬 나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 대부분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가족이 풍족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해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가족

가족과 떨어져 홀로 일 만하며 지내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내가 일해 번 돈으로 고국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가족들 부양하는데 힘들지요?) 동티모르에 어머니, 형제, 동생, 조카. 모두 형편 어려워 제가 돈 벌어 보내요. 이렇게 한국 와서 돈 벌 수 있는 거 행운이에요. 같이 온 고향 친구와 제가 돈 많이 벌어 보낸다고 동티모르에서 유명해지고. 소문 많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연구참여자 4).” (연구물 2)

“(한국 오기 전에는 필리핀의 제조업체에서 6년을 일했지만)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문제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니 이제 가족 형편이 좋습니다(연구참여자 3).” (연구물 9)

귀국 후 삶의 기반이 생김

한국 생활에 적응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가족이 있는 고국에 돌아가 넉넉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번 돈과 익힌 기술로 귀국 후 안정적인 일을 통해 한국에서와 같은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저의 코리안 드림은 필리핀에서 자립(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고요. 네 저는(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꿈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삶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나아졌거든요. 저는 까가얀(필리핀의 도시 Cagayan)에 이미 집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그간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돼지 농장을 해보려고요(연구참여자

3).” (연구물 9)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을 오가며 무역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초를 닦고 있어요.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한국어로만 배워요. 한국은 제 꿈을 키울 수 있고 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5).” (연구물 10)

가족의 자랑이 됨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노동하여 번 돈으로 가족이 풍족하게 살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큰 자랑거리이다. 이를 알고 인정받는 이주노동자의 행복감도 높다.

“한 달에 150만원 보냈어요. 처음에는 빚 갚고 집 짓고 가족들이 함께 살 집 짓고. 엄마 아빠한테 집 지어 주었어요.(얼굴이 환해지며) 가족들 나 보고 최고! 최고!(연구참여자 6).” (연구물 2)

“좋은 아들 되었어요. 그게 제일 보람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요. 000이 좋은 아들 되었어요. 제일 기분 좋아요(연구참여자 7).” (연구물 10)

V. 논 의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에서 KCI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후보인 연구와 박사학위, 석사학위 연구를 준거기준에 따라 선정된 10편의 연구를 종합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경험 과정에 따라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함’, ‘차별을 받음’, ‘정체성 혼란’, ‘외부와 단절된 삶’, ‘한국 문화에 익숙해 짐’, ‘한국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됨’, ‘사회적지지 체계가 만들어 짐’, ‘고국의 가족들과 나은 미래를 희망함’의 9가지 공통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결론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반응 중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일터 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한 이주 목적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이주노동자이다. 이는 모국의 가족부양을 어렵게 만들고 모국의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키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사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받아들여 아픈 몸을 가지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 더군다나 타국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병원에서도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이주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요인이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고발하고 단속에 잡히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는

삶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경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주노동자이지만 같은 국가 출신의 노동자를 사업장으로 데려오거나, 체류 자격이 자신보다 좋지 않지만 임금이 더 나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이다. 고용당한 당사자이거나 상황을 목격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타의로 사업장을 나가거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같은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중국적의 경우는 또 다른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조선족 동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현(2008)의 연구에서 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들은 타 국적의 노동자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닌 체류 비자 변경으로 귀화한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누구의 편인지 묻거나 이주하기 전의 국가로 돌아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업무상의 이유로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장 또는 직장동료로부터 구타, 폭행, 폭언, 비난 등을 당한 적 등의 경험이 부정적 심리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려인, 조선족,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인선(2004) 연구에서도 적응 스트레스원인 언어 갈등, 차별 경험, 법적 지위는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높아진다. 회사에서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 대해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아닌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과 비교하게 되면서 그 수준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부정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의 어

려움, 낮은 사회적지지,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열악한 고용조건, 산업재해, 임금착취 및 인종차별, 미흡한 의료혜택, 거주 및 생활의 불안정, 강제추방 및 불법체류, 범죄 연루 등의 다양한 생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김대명, 2016; 천타잉똥, 2015)는 결과에서 나온 부정적 적응 요인들이 선행연구 결과 내용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또는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이주노동자가 높은 우울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정, 2001; 이인선, 2004; 정기선, 2003).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부적응 수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패와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격려와 편안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의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및 격려, 안정된 정서적 상태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부정적 심리 경험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중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을 때 느끼는 고마움이나 뿌듯함을 느낄 때, 적응을 통해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접하거나 본인이 지지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후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일터 내에서 인정받아 주변 동료들의 모범이 된 경우와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국 문화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게 만든다. 동료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물질적 도움의 영향도 큰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와 신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긍정적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 이에 한국어 수준은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지만 한국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화 될 수도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노유성, 2004).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김은정, 2001)와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체계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정서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신건강은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긍정적 심리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대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 및 한국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적응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모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들을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셋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 적응과 신체적 특성이 나타나고 긍정적 심리 적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산업재해 노동자들은 갑작스런 신체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분노, 낮은 자존감, 삶

의 질 저하, 장애수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정인석, 2016)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까지 보이기도 하면서(박소연 외, 2008; Cacciaccaro & Kirsh, 2006),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박수경, 김동기, 2006; 이지은, 2001)는 선행 연구 결과는 산업재해 경험 후 한국에 대한 복수심이 생긴 참여자의 반응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도움을 받았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이후 지원단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경험과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재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화진, 이명선, 2004)에서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에는 자조집단과 가족의 지지가 유의미하고, 우울 정도에는 자조집단, 노동력 상실 정도, 가족의 지지가 유의미하였으며, 스트레스에는 가족의 지지, 자조집단, 직업 여부가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물의 대상자의 경우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지내며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경험은 단순히 신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범주인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 장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아픈 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 이주 초기 즉각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 초기에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초기 사정과 개입은 이주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 크게 부정적 심리 적응 경험과 긍정적 심리 적응 경험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질환, 적대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후들과 생활만족도, 삶의 질, 자아존중감과 같은 요인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경험 분석을 위한 주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기존의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 분석 연구들이 사회문화적응에서 사회적 측면에 중점적으로 바탕을 두고 심리적 측면에는 소홀히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심리적 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이주노동자 심리상담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 요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의 중심적인 목적이 한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따라서 직장생활에서의 조건과 상황들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를 통해 근무환경적 요인의 근무시간, 임금 체불 경험, 산업재해 경험이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모국과 모국의 문화에 대한 무시와 존중받지 못함에 대하여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지각된 미워함과 그로 인하여 느끼는 열등감, 사회적 고립감, 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존감 회복과 집단지지를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들이 생기도록 돕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이 유지

되고 사업주와 맺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미등록 신분이었던 이주노동자인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디에 제소할 수 없는 신분상의 약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의 부정적 적응 경험을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법으로 정해진 기본권리가 보장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의 기초를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요인을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지원단체, 주변인 그리고 이후에는 이주노동자 본인이 다른 이주노동자에게 지지자원이 되어 주는 것으로 분류함으로 이주노동자의 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자원체계에서 고려하였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동료와 상사, 주변인들에 의한 폭언 혹은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상황극복을 위한 지지자원 발견은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모국출신 동일집단의 지지가 긍정적 심리 적응 경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더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주 초기에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내하며 나름대로 고국에서보다 현재 한국 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질에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경제적인 대가가 모국에 비해 크게 높고, 그로 인해서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평가하는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주연 외, 2011)인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적응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가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사들의 이해를 높여 상담 시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적응에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한계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체류 기간, 입국 경위, 가족 동반 등의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산업재해나 인권침해 경험 등에 대한 요인들 모두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를 전체 이주노동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례 수가 많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국적, 성별, 나이 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구물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신 국가별 특성이나 성별, 나이에 대한 특성을 전부를 포괄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이 다르다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며, 태도에 따른 적응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적응에 대한 경험에 있

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상의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반응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 수준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만큼 후속연구의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한계로 다루지 못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을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에는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체류기간, 출신 국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수돌 (2002). 노동 패러다임의 극복을 위하여. **황해문화**, 34, 428-438.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국제이주기구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김규상 (2008).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월간산업보건**, 241, 66-67.
- 김대명 (201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4), 89-100.
- 김범준, 김준경 (2018).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8, 57-90.
- 김선임 (2010).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정-혜화동 공동체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4, 45-82.
- 김승만 (2011).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정세와노동**, 67, 52-59.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영경 (2009).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0), 535-559.
- 김영준, 박경호, 김재준 (2005).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6(3), 61-71.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

- 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영숙 (2011). 회교공동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문화 기술지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3(2), 109-132.
- 김영주 (2009). 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 충청남도 농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1), 121-160.
- 김은정 (2001). **외국인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30), 81-118.
- 김정하 (2007).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고찰, **국제해양문제연구**, 189-203.
- 김종일, 이상철, 이종구, 설동훈 (1995).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경제와 사회**, 26, 172-207.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전라남도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철효, 설동훈, 홍승권 (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7(2), 93-129.
- 김희걸, 한혜진, 김용구 (2005).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노동부연구용역사업**. 경기도 : 경원전문대학.
- 나장함 (2008a).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고용**, 18(2), 135-157.
- 나장함 (2008b).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26(4), 229-252.
- 노유성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현 (2014). 이주노동자를 접촉한 산재보험 업무종사자의 경험: 이주노

- 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8(1), 93-124.
- 노지현 (2015a). 이주노동자 자살 사례 연구: 자살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247-281.
- 노지현 (2015b).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연구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315-347.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경태 (2001).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의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13, 26-48.
-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6, 1-28.
- 박소연, 김진경 (2008). SF-36을 이용한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평가. **대학작업치료학회지**, 16(2), 73-89.
- 박수경, 김동기 (2006). 산재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0(3), 150-174.
- 박수만, 박종태 (2006).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한국산업안전공단.
- 박수만, 정혜선, 김용규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 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한국산업안전공단.
- 부종식 (2012). 이주노동자의 의료인권. **생명윤리정책연구**, 6(1), 69-81.
- 배혜진 (2023). **이주노동자의 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과제 중심 교수**

-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정숙, 이계희 (2006). 이주노동자의 여가제약요인과 여가행태. **관광레저 연구**, 18(2), 243-259.
- 법무부 (202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설동훈 (1992a). 국제 노동력 이동과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지역 문제와 노동계급.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37, 231-325.
- 설동훈 (1992b). 기획논문-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사회**, 15, 113-144.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2004).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4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설동훈 (2006).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권태환 김두섭 편. 한국 인구의 성장과 다양성,**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 발전연구소.
- 손은정 (2010).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놀이치료연구**, 13(3), 1-21.
- 손행미 (2020). 질적 메타합성에 대한 문헌고찰. **대한질적연구학회지**, 5(2), 109-118.
- 송수연 (2021.09.08.). “이주노동자 자살률도 높은 한국...지원정책도 없다.”.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77>.
- 송인영, 김영화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적응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17(4), 147-169.
- 우국희, 김한호, 한일숙, 이연순, 김종례 (2010). 중고령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및 죽음불안-중국국적 동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95-122.

- 신순영 (2009).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규범 (2002).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02, 2-32.
- 안슬기, 최빛내 (2021). 다문화 상담의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 논문 분석 (2000-2020). **문화와 융합**, 43(10), 135-150.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26, 79-110.
- 양영란, 김혜영 (2021).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련 연구동향과 연구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최근 10년간(2010-2019년). **대한보건연구**, 47(1), 59-75.
- 오영란 (2004).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경인지역 소아암 환자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주, 고진호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경험연구. **인문사회**21, 12(2), 2097-2112.
- 유승희 (2020).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문화학습적 접근, 사회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1), 151-184.
- 윤근영 (2023.05.03.). “나는 산재 승인 안 되면 죽게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144500518>.
- 이관형, 오지영, 조흠학 (2009). 근로자의 참여와 소통이 산업재해감소에 미치는 인과관계 구조모형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학회지**, 11(2), 19-26.
- 이덕남 (2012). **이주남성노동자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경, 김경근 (2012).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계

- 적 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22(2), 179-209.
- 이병운, 고준기 (2010).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 31, 323-352.
- 이선옥 (2005).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고용허가제 도입 시기 명동성당농성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웅, 김규상, 김태균, 류향우, 이미영, 원용림, 송윤희 (2009).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1(1), 76-86.
-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99-910.
- 이은비, 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MWTV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441-468.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 (2005).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27, 75-90.
- 이정환 (2007). **2006년 이주노동자 에이즈와 성행태 조사연구보고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이정환, 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정숙 (2018).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386-398.
- 이주연, 김혜숙, 신희천, 최진아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

- 화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인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5(4), 83-97.
- 이지은 (2001). **산업재해장애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안산재활훈련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 이명선 (2004). 통원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가족 지지가 재활 동기에 미치는 영향. **재활간호학회지**, 7(2), 188-196.
- 이현정 (202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이해웅 (2014).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0(1), 213-252.
- 이효선 (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F.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49-84.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선일 (2011).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연구: 한국계와 비한국계 이주노동자의 사례비교**.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규 (2007). 외국인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원, 스트레스 증후군, 일탈행동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 사회과학논총**, 26(2), 185-207.
- 임주현 (2023.06.19.).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1013>.
- 장연진 (2006).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 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장은애, 최영 (2010).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26(3), 1-25.
- 전혜정, 이가연 (2015).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80-389.
- 정기선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 지식마당.
- 정선영, 오영립, 배이진 (2013). 사회적 관계망, 일상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1-35.
- 정은희 (2005). **이주노동자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석 (2016). **근로자의 자아상태, 안전 및 불안전행동, 산업재해 간의 관계분석**. 부산디지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1), 101-136.
- 정혜숙 (2010).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돕는 실천현장의 이해와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현장활동가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 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1, 97-128.
- 조진경 (2003). **외국 인력 고용의 현황과 과제-고용허가제 도입의 전말과 과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학 (2010).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19, 57-84.
- 주인석, 이현진, 김명찬 (2021). 질적탐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2015-2020년). **질적탐구**, 7(2), 1-28.

- 차옥승 (2013).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담론**201, 12(2), 165-193.
- 천 타잉 땡 (2015).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숙, 김진숙 (2016).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교사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상담학연구**, 17(5), 441-464.
- 최현 (2008).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한건수 (2005).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1, 215-239.
- 한동우 (2002). 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상황과 복지**, 12, 13-42.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 형미정 (2020). **경력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상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명교 (2022.09.18.). “사우디, 미국 갔던 우리가 빚진 것, 미등록 이주민 40만 시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9013.html.
- Aspfors, Jessica., & Fransson, Göran. (2015). Research on mentor education for mentors of newly qualified teachers: A qualitative meta-synthesi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48, 75-86.

- Ataca, B., & Berry, J. W.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Dinesh, Bhugra., & Peter, Jones. (2001). 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7(3), 216-222.
- Cacciaccaro, L., & Kirsh, B. (2006). Exploring the mental health needs of injured worker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3(3), 178-87.
- Cheng, Y.-s. (1998). A qualitative inquiry of second language, Anxiety: interviews with taiwanese EFL students. Taipei, Taiwan: Crane Publishing.
- Cohen, S., & Wills,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 DeJean., M, Giacomini., M, Vanstone., & F, Brundisini. (2013). Patient experiences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chronic,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qualitative meta-synthesis. *Ont Health Technol Assess Ser*, 13(16), 1-33.
- Finlayson, K. W., & Dixon, A. (2008). Qualitative meta-synthesis: A guide for the novice. *Nurse Researcher*, 15(2).
- House, J. S. (1983).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 Welsley Series on Occipational Stress.
- Kaplan, B., Cassel, J.,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58.

- Lin, N., Dean, A. & Ensel, W. M. (1986). The age structure and the stress process. In N. Lin, A. Dean, W. Ensel(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Academic press.
- Na, J. (2008). Qualitative meta-synthesis on training and workplac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of applying qualitative meta-synthesis. *Disability & Employment, 18*(2), 135-157.
- Noblit, G. W., & Hare, R. D.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Vol. 11). CA: Sage Publications.
- Paterson, Barbara, L. (2001). *Meta-study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otocky Tripodi, Miriam (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4), 449-464.
- Thorne, Sally. (2017). Meta-synthetic madness: What kind of monster have we create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7*(1).
- Thorne, S., Jensen, L., Kearney, M. H., Noblit, G., & Sandelowski, M. (2004). Qualitative meta-synthesis: Reflections on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ideological agenda.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3*(10), 1-24.
- Tsang, E. W. (2001). Adjustment of mainland chinese academics and students to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4), 347-372.

- Sally, E. Thorne., Louise, A. Jensen., Margaret, H. Kearney., & George. Noblit. (2004). Qualitative meta-synthesis: Reflections on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ideological agenda.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10), 1342-1365.
- Ward, C. (1996). Acculturation, In Dan Landis & Rabi S. Bhaga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CA: Sage publications.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ang, J., Hong, J. Z., & Pi, Z. L. (2015). Cross-cultural adaptation: The impact of online social support and the role of gend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3(1), 111-122.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641.
- Zimmer, L. (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311-318.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 of Migrant Workers

Ji-Min Sung

Department of Applie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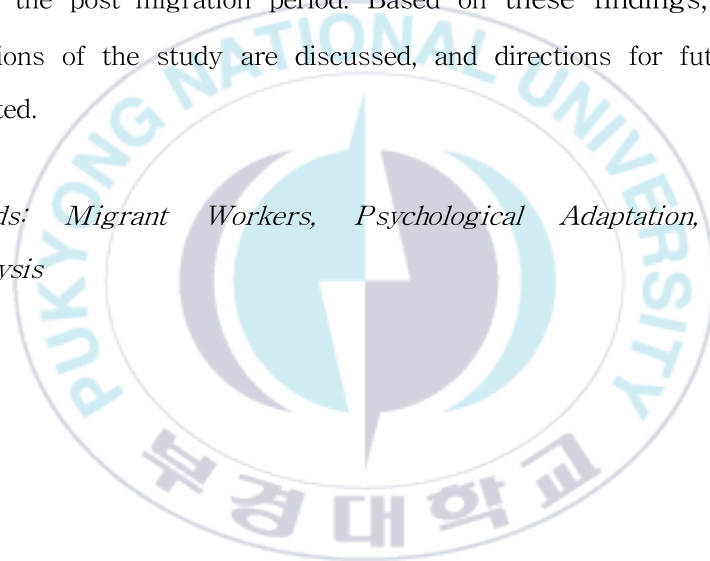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s of migrant workers. The analysis included a total of 10 articles, comprising 4 domestic academic journals list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from 2010 to 2023, 1 journal under consideration for inclusion, 3 doctoral dissertations, and 2 master's the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lected studies, two categorie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s of immigrant workers were derived and named 'negative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adaptation.'

Subsequently, nine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including 'physical pain and discomfort,' 'anxiety due to residency statu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dentity confusion,' 'disconnected life from the outside world,' 'familiarization with Korean culture,' 'ability to confidently exist in Korea,' 'formation of social support systems,' and 'hoping for a better future for family in the home country.'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negative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physical disabiliti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security in residency status. On the other hand, improved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leading to a change in residency status and a robust social support system were associated with positive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s.

In the discussion, the identified factors and statements were used to describe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s of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each key concept.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research 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post-migration perio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Key words: Migrant Workers, Psychological Adaptation, Qualitative Meta-Analysis



부록 1.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8) 문항지

질문 및 도움말	예	아니오	확인 불가	코멘트
섹션 A: 검토 결과가 유효한가?				
1. 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왜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나? - 그 연구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2.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 연구가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및/또는 주관적인 경험을 해석하거나 밝히는 것을 추구하는 가? - 질적 연구가 연구목적에 다루는데 적절한 방법론인가?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까?				
3. 연구 목적을 다루는 데 연구 설계가 적절한가? 연구자의 연구 설계를 타당한지 (예: 연구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는 대해 어떤 논의 했는지)				
4. 연구 목적에 적합한 참여자 선정 계획이었나? - 연구자가 참여자 선정 방법을 설명했는지 -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했는지 - 모집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예: 일부 사람들이 선정에 제외된 이유)				
5.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 - 데이터 수집 설정이 타당한지 - 데이터 수집 방법이 명확한지(예: 포커스 그룹, 반구조화 된 인터뷰 등) -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했는지 - 연구자가 방법을 명시한 경우(예: 면접방법,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주제 가이드를 사용했는지 등) - 연구 중에 방법이 수정된 경우. 그렇다면 연구자가 그 방법과 이유를 설명했는지 - 데이터 형식이 명확한 지(예: 테이프 녹음, 비디오 자료, 메모 등) - 연구자가 데이터 포화에 대해 논의했는지				

질문 및 도움말	예	아니오	확인 불가	코멘트
6. 연구자와 참가자 간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연구자가(a) 연구 질문의 구성(b) 데이터 수집, 지역 선정에 포함하여 연구자의 역할, 잠재적 편견(선입견) 및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는지 - 연구 도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연구 설계의 변경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				
섹션 B: 결과는 무엇인가?				
7.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 독자가 윤리 기준이 유지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가 참여자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 연구자가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했는지(예: 동의여부나 기밀성에 대한 문제 또는 연구 도중이나 이후에 연구가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처리한 방법) - 윤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8. 데이터 분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 - 분석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있는지 - 주제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범주/주제가 데이터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명확한가? - 연구자가 분석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원래 표본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는지 여부 -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제시되었는지 - 모순되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였는지 - 연구자가 자신의 역할, 잠재적 편견(선입견), 영향력 등을 분석 및 발표 자료 선정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지				

부록 2.

분석 대상 연구물

번호	저자	발행년도	제목	출처
1	이효선	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 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F. Schu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2	이덕남	2012	이주남성노동자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3	이남주	2015	국내거주 고려인 노동자 부부의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4	노지현	2015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 Giorgi 현상학 연구 접근-	KCI 등재후보
5	노지현	2016	남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후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KCI 등재
6	노지현, 강선경	2016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KCI 등재
7	박두석	2017	조선족여성의 취업이주 적응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8	최나연	2022	러시아 여성 근로자의 한국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9	최경식	2023	매일 괴물을 마주하는 눈물나는 한국생활 :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재 연구	박사학위논문
10	박지윤, 박은민	2023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내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KCI 등재